

행복은 날쌔돌이!

하하호호 😊 웃지 않으면 재빨리 도망간다

글 ✎ 최윤희(방송인, 행복디자이너)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재밌는 사연을 들었다. 시골에 사는 분이 보내온 편지였다.

그곳은 몇 가구가 안 사는 아주 작은 마을.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친척처럼 사는 곳이다. 그 마을에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는 멧돼지가 한 마리가 나타났다. 처음 보는 멧돼지라 아마도 산에서 내려 온 산돼지겠거니 생각하고 동네사람들은 썩썩하게 의기투합했다. 그들은 죽기살기 짓먹던 힘까지 다 꺼내서 멧돼지를 포획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잔치잔치~~ 벌였다. 막걸리 한 잔씩 돌려가며 덕담들을 주고 받았다. 아이고, 우리 성님이 수고하셨구만요! 아니여, 그래도 동상이 힘이 써서 잡은거여! 걸죽한 막걸리와 기름기 찹찹 흐르는 멧돼지 고기……. 밤은 그렇게 화기애애한 멧돼지 파티로 깊어갔다.

그런데 며칠 후 서울에서 새로 이사 온 청년이 이장한테 말씀드릴 게 있다고 찾아왔다. 사실은 저의 집 멧돼지가 실종되었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시면 협조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장님, 방송 좀 해주실 수 없나요?

이장은 아연실색했다. 도대체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우리 이제 어찌해야 한단 말인가?

그는 청년에게 알았다고 말하고 즉시 마을회의를 소집했다. 이장의 말을 듣고난 그들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 모두 다 묵묵부답. 할 말이 없었다. 한참 동안 긴 침묵이 흐른 후 그래도 공식수장인 이장이 말문을 열었다. 어쩔 수 없제, 우리가 잡아 묵은 것만큼 우리가 멧돼지 값을 물어내야제! 또 잠시동안의 짧은 침묵! 그러나 어떤 할아버지가 동의할 수 없다는 듯 자기주장을 펼쳤다. 그건 아니여, 그날 다 묵긴 했지만 난 속이 불편해서 두점, 그려, 딱 두점 밖에 안 묵었응게 똑같이 물어내면 억울하잖여! 그러니께 각자 묵은 것만큼만 벌어 놓드라고! 그러자 여기저기서 웅성웅성 반론이 날아왔다. 그중에서도 가장 크게 들리는 소리가 송곳같은 어느 할머니의 목소리. 아니, 시방 그것을 말이라고 한다요? 식당가서 음식 시켜놓고 남기면 돈 다 안내고 나온다요? 말같은 소리를 하썩

잉? 맞아, 그 소리가 맞당께! 여기저기서 맞장구를 쳐댔다.

…… 그들은 본능적으로 모두 다 마음속에 환상적인 그 밤을 되짚어 보고 있었다. 공짜라서 멧돼지는 더욱더 맛있고 신났다. 모두들 성님, 아우님, 하면서 술에 취해 노래했다.

이것 봐, 멧돼지가 왜 이렇게 찰진거? 공짜라서 더 맛있는 거 아냐? 그러그러.

그렇게 각기 혼자서 필름을 되돌려보던 그들은 상대방이 원망스러워졌다. 니가 먼저 발견했잖아! 시방 뭘 소리여? 그렇게 내가 말했잖아? 잡지는 말자고! 자네가 주인도 없는 멧돼지가 불쌍하다면서 차라리 우리 뺏속에 들어가서 편히 쉬게 해주자고 항거 아니여?

결국 똑같이 돈을 부담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회의는 끝났다. 이것이 라디오에서 들은 편지 사연이었다.

나는 쿡쿡 웃음이 터져 나와 참을 수 없었다. 누가 그들에게 손가락질 할 수 있으랴? 그들이 바로 나의 모습이 아닌가? 그 편지속엔 인간의 본능이 100% '올 누드'로 드러나 있었다.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렇게 비상사태가 되면 모두 다 날날이 드러나는 것이다. 성님, 아우님, 서로를 위해 온갖 희생봉사를 마다할 것 같지 않다기도 이렇게 이해관계에 부딪히면 본성을 감출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다.

그렇게 모순된 인간이기에 더 사랑스러운 것 아닐까? 너무 완벽하다면, 모든 점에서 나무랄 데가 없다면 그것은 살과 뼈로 만든 인간이 아니라 철제갑옷으로 만든 로봇이 아닐까? 나는 그래서 라디오 사연을 듣고 비웃기보다는 깔깔떨떨 한바탕 웃어댔다.

그렇다. 행복은 아주 쉽다. 이렇게 그냥 웃으면 된다. 아무 것도 아닌 일에 하하호호 웃어버리자. 우리는 행복하고 싶으면서 인상을 찌푸리고 남을 미워하고 화부터 낸다. 그렇게 살면 행복은 날쌔 돌이처럼 도망가고 만다. 자, 행복을 향해 지금부터 '웃음윙크'를 날려보자.

행복아, 어서 빨리 와, 나 너를 디따 사랑해. 하하호호^^ ♪

행복학 강사로 잘 알려진 최 윤 희 님은 청와대, 각 기업체, 공무원, 대학원, 주부, 시민들을 대상으로 강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KBS아침마당, MBC, SBS 등 5개 프로에 고정 출연중이며, 저서로는 <대한민국 여자들의 유쾌한 반란>, <웃음혜픈 여자가 성공한다>, <행복이 뭐 별건가요?> 등 15권이 있습니다.